

주관절 전치환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김희선*, 이용걸, 전영수, 조영린

저자들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에서 1991년 12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semiconstrained 주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은 29명, 31례에 대하여 그 결과를 추시 관찰 하였다.

수술시 환자의 평균 연령은 47(29-72)세 였으며, 남자 9명, 여자 20명이었고, 그중 2명에서는 류마티드 관절염으로 인해 양측 주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다. 진단으로는 류마티드 관절염이 17례로 가장 많았으며, 외상성 골관절염이 8례, 결핵성 관절염 후유증이 3례, Charcot's joint 1례, 불유합 1례, 골절 1례 등이었다. 수술후 평균 추시기간은 1년 6개월(6개월-5년 3개월)이었다. 주관절 삽입물은 모든 예에서 semiconstrained total elbow prosthesis (Mark II, De Puy, Warsaw, Indiana)를 사용하였다.

결과는 Mayo elbow performance score를 사용하여 나타냈으며, 19례에서 우수(excellent), 8례에서 양호(good), 2례에서 보통(fair), 2례에서 불량(poor)의 결과를 얻었고, 27례의 환자에서 최종 추시시 만족의 결과를 보였으며, 불만족스러운 4례의 술전진단은 류마티드 관절염 1례, 불유합 1례, 주관절 강직 1례, Charcot's joint 1례 였다. 수술전 11례에서 심한 동통을, 16례에서 중등도의 동통을 그리고 경도의 동통과 동통이 없는 경우가 각각 2례를 나타냈으나, 술후에는 8례에서 경도의 동통을 보였고, 23례에서는 동통을 보이지 않았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보면 술전 평균 4.8점에서 술후 평균 21.2점으로 30례의 환자에서 최종추시시 주관적인 만족의 결과를 보였다. 안정성에서는 수술전 평가에서 3례에서 경도의 불안정성을 보였으며 4례에서 중등도의 불안정성을 보였으나 술후 심부감염으로 상완 삽입물을 제거한 1례와 상완 삽입물의 무균성해리 4례를 제외한 26례에서 안정성을 보였다. 주관절의 운동범위에서는 술후 물리치료도중 비협조적으로 치료되어 추시시 40도의 굴곡구축을 보인 1례를 제외하고 굴곡구축이 술전 평균 35(0-100)도에서 술후 평균 10(-5-30)도로 향상되었고, 굴곡의 경우 역시 술후 물리치료도중 비협조적으로 치료되어 추시시 90도의 굴곡을 보인 2례를 제외하고 술전 평균 91(10-135)도에서 술후 평균 120(100-145)도로 향상되었다. 또한 술전 주관절의 관절운동범위가 30도 이하의 강직이 있었던 9례를 제외하면 술전 평균 굴곡구축 28(0-60)도, 굴곡101(70-135)도에서, 술후 평균 굴곡구축 6(-5-20)도, 굴곡 128(100-145)도로 향상되었다. 술후 합병증으로는 무균성 해리 4례, 심부감염 1례가 있었으며 radiolucent line을 보인 경우가 5례 있었다.